



2023.01.31.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 현안 분석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금융: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총괄 | 진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이상은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최세중 경제분석관

작성 | 진익 경제분석국장

이규민 경제분석관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김경수 경제분석관	조은영 경제분석관
박승호 경제분석관	최세중 경제분석관
김상용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황종률 경제분석관	유근식 경제분석관
김원혁 경제분석관	김상미 경제분석관
박선우 경제분석관	
이진희 경제분석관	

지원 | 이인희 행정실무원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은 각종 국내외 경제지표의 정리·분석 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에서 대외경제 현황 파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02) 6788-3781 | nabo378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2023. 1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
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1. 2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무역수지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적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들어 대폭 하향 조정되었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등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이 대부분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 경제가 직면한 8대 현안을 선정하여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물가, 금융, 재정, 투자, 수출, 인구, 기후·에너지 위기와 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I장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II장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물가), III장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금융), IV장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재정), V장 위축 위험 속에서 활력 유지하기(투자), VI장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수출), VII장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인구), VIII장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기후·에너지 위기) 등 우리 경제의 현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차 례

요 약

I.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 1

1. 검토 배경	1
2. 2023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	3
3.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5
4.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의 목표	8

II. 물가: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 15

1. 검토 배경	15
2. 현황	16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22
4. 현안 분석	24
5. 요약 및 시사점	36

III. 금융: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 / 43

1. 검토 배경	43
2. 현황	44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46
4. 현안 분석	47
5. 요약 및 시사점	66

IV. 재정: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 / 67

1. 검토 배경	67
2. 현황	68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75
4. 현안 분석	76
5. 요약 및 시사점	85

V. 투자: 위축 위험 속에서 활력 유지하기 / 87

1. 검토 배경	87
2. 현황	89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91
4. 현안 분석	94
5. 요약 및 시사점	100

VI. 수출: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 / 107

1. 검토 배경	107
2. 현황	109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17
4. 현안 분석	119
5. 요약 및 시사점	128

VII. 인구: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 131

1. 검토 배경	131
2. 현황	133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38
4. 현안 분석	140
5. 요약 및 시사점	151

VIII. 기후·에너지 위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 153

1. 검토 배경	153
2. 현황	154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57
4. 현안 분석	158
5. 요약 및 시사점	178

Ⅲ. 금융: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국내 및 주요국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 2022년 중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p 인상한 가운데 국내 및 주요국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냄
 - 국고채(3년) 금리는 2021년말 1.8%에서 2022년말 3.7%로 1.9%p 상승
 -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2021년말 1.5%에서 2022년말 3.9%, 유로존 국채(10년)는 -0.2%에서 2.6%로, 일본 국채(10년)는 0.1%에서 0.5%로 상승
- 글로벌 금리상승의 지속성을 점검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및 자산시장의 리스크를 점검

□ 금리상승 및 고금리 기조는 미 연준의 통화긴축 등을 고려시 일정기간 지속될 전망

- 2022년 6월 시작된 미 연준의 양적긴축 등은 향후 금리의 하방압력을 제한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 연준이 양적완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공급한 4.8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 회수를 위해, 양적긴축이 일정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또한 미 연준의 2000년대 초반 이후 기준금리 인상 사례와 비교해 최근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 기간이 짧고 미국 등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2023년 중 현 기준금리에서 큰 폭의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음
- 다만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세의 주요 동인이었던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과 인상 속도는 완화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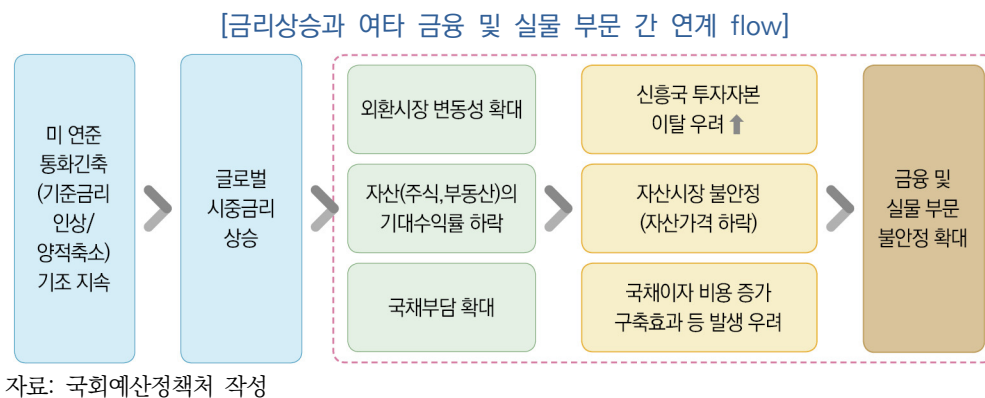
□ 금리상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미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 외환시장 불안, 투자자본 이탈 등을 초래하고 이는 과거 우리 금융시장의 금융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분석결과 터키,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등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IMF 대외 취약성 기준인 100% 보다 높아 금융안정성이 취약한 상황
- 최근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와 주택가격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금리변동과 주택가격 변동 간 음(-)의 연계성이 나타남
 - 이는 금리 상승시 주택가격의 하락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

- 2022년 국고채 조달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2022년 발행량 기준 2021년 대비 금리상승에 따른 연간 추가 이자 부담액은 2.3조원으로 추정

□ 금융위기 대응 여력을 확대하고 금융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신흥국 위기의 국내 전이 위험에 대한 적시적 대응을 위해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
- 금리상승에 기인한 부동산시장 위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국고채 투자환경 개선, 시장 조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국채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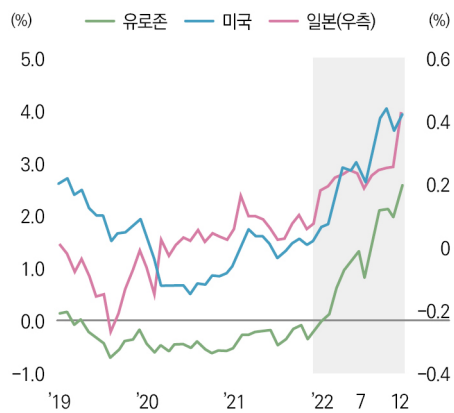
III. 금융: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

1. 검토 배경

□ 주요국 금리가 전반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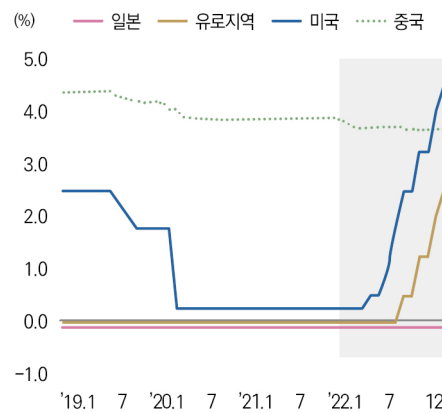
- 미국, 유로존,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2022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반적 상승세를 지속
 -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2021년말 1.5%에서 2022년말 3.9%, 유로존 국채(10년)는 -0.2%에서 2.6%로, 일본 국채(10년)는 0.1%에서 0.5%로 상승
-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2022년 들어 빠르게 인상되는 가운데 유로존도 물가 불안 등으로 인상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일본은 동결, 중국은 소폭 인하

[그림 III-1] 주요국 국채(10년) 금리 추이



자료: Datastream

[그림 III-2]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Datastream

□ 금리는 여타 금융 및 실물 부문과 연계성이 높아 금리상승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

- 이를 위해 글로벌 금리상승의 지속성을 점검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및 자산시장의 리스크를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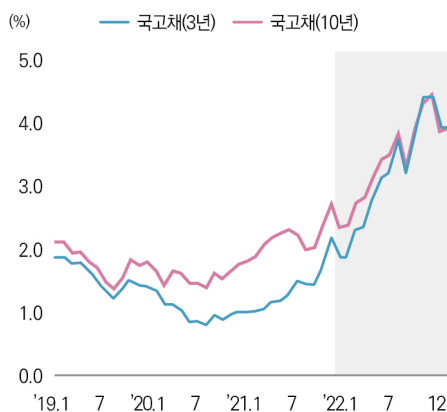
박승호 경제분석관(shpark@assembly.go.kr, 02-6788-4671)
이규민 경제분석관(dlrals90@assembly.go.kr, 02-6788-4672)

2. 현황

□ 우리나라 국고채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이후 최근 조정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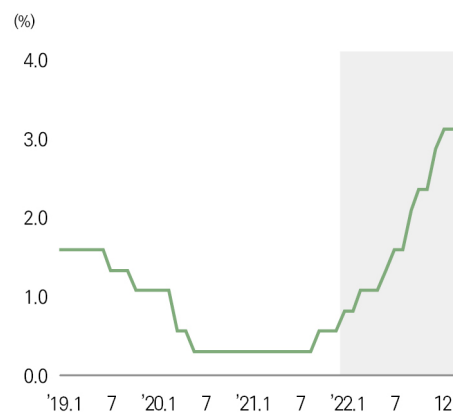
- 2022년 국고채금리는 글로벌 물가불안 등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이 강화됨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조정 양상
 - 국고채(3년) 금리는 2021년말 1.8%에서 2022년 10월말 4.2%로 상승한 이후 12월말 3.7%로 하락하였으며, 국고채(10년)는 2022년말 2.3%에서 2022년 10월말 4.2%로 상승한 이후 하락하며 12월말 3.7% 기록
- 2022년 중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기조, 국내 물가 불안 등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말 1.0%에서 2022년말 3.25%로 상승

[그림 III-3]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III-4]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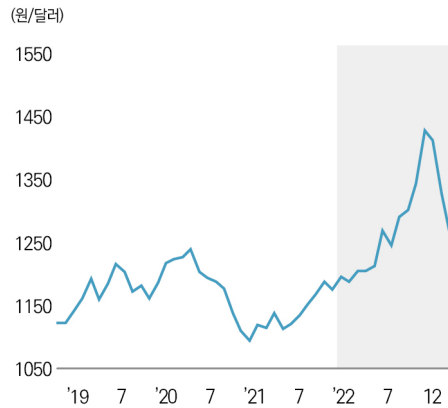


주: 월말 기준
자료: Datastream

□ 원화와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빠른 상승세 이후 최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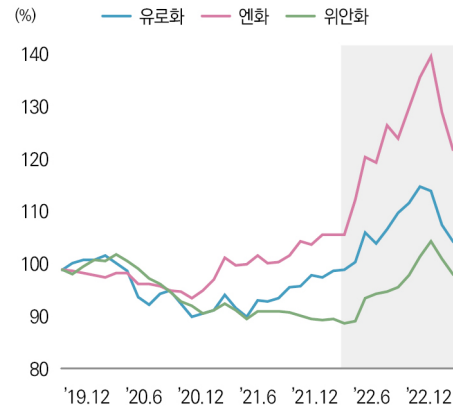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등으로 상승한 이후 조정 양상
 - 2021년말 원/달러 환율은 1,185.5원에서 2022년 9월말 1,434.8원으로 상승한 이후 조정 양상을 보이며 12월말 1,267.3원을 기록
- 유로화, 엔화,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도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
 - 2022년말 기준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가치는 2021년말 대비로는 각각 6.2%, 13.9%, 8.5% 하락

[그림 III-5] 원/달러 환율 추이



주: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III-6]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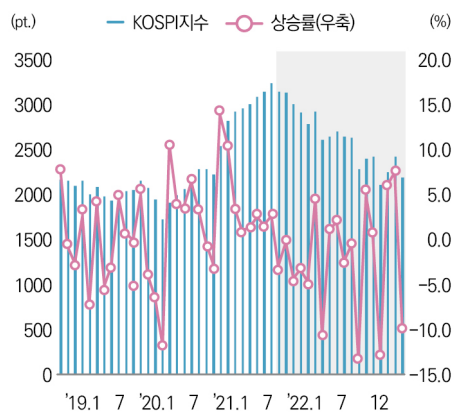


주: 2019년말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자료: Bloomberg

□ 국내 및 글로벌 주가는 2022년 중 전반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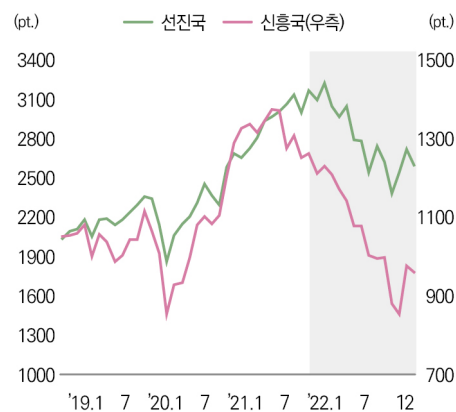
- 2022년 중 국내 주가는 미 연준의 통화긴축 등으로 하락
 - KOSPI지수는 2022년말 기준 2021년말 대비 24.9% 하락
- 2022년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2021년말 대비 19.5%, 신흥국 주가는 22.4% 하락
 - 국가별로 2022년말 기준 미국 주가는 2021년말 대비 8.8%, 독일 주가는 12.3%, 일본 주가는 9.4% 하락

[그림 III-7] KOSPI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그림 III-8] 글로벌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 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안전판 확충 등으로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

- 금융시장과 관련된 위기대응 역량 제고,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
- 안정적 외환보유액 관리 등을 위해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기체결 통화스왑 연장을 통해 대외안전판 강화

□ 국내외 금융불안과 실물위험에 대한 위기감지 및 대응력 제고

-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
- 해외자금·투자 유입 확대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할 계획

나. 부동산 안정화 관련

□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

-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추진할 방침
- 부동산 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PF시장 연착륙 지원 등을 추진

다.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

□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마련하고 수급여건을 개선할 계획

- 국공채 발행 조절 등을 통해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유도
 - 국고채의 발행물량 및 발행시기 조절 등을 통해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
-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발표한 회사채, 기업어음 등과 관련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

4. 현안 분석

가. 금리상승(고금리) 방향성 점검

□ 미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은 시중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미국과 여타 국가 간 시중금리차 축소, 환율 약세 경로를 통해 자본유출과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이는 여타 국가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높이는 요인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지속될 경우 국내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위험 회피심리가 강화되어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
 -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수입비용이 증가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본유출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기조가 일정기간 유지될 가능성

[그림 III-9]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외 국가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간 연계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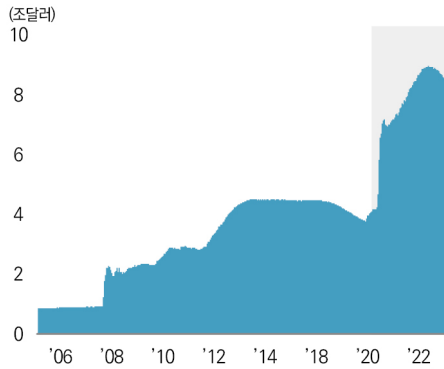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금리상승 및 고금리 여건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 등을 고려시 일정기간 지속될 전망

- 2022년 시작된 미 연준의 양적긴축은 향후 금리의 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일정기간 작용할 가능성
 - 미 연준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단행한 양적완화로 2020년 이후 4.5조 달러를 상회하는 달러 유동성이 공급
 - 2022년 9월 이후 미 연준은 월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수준의 보유채권을 매각하며 달러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
 -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초기 단계로 2020년 이후 공급된 달러 유동성 회수를 위해 미 연준의 양적긴축이 일정기간 지속될 가능성

-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및 시중금리의 하방압력을 제한하는 요인

[그림 III-10] 미 연준의 자산규모



자료: Datastream

[그림 III-11] 미 연준 기준금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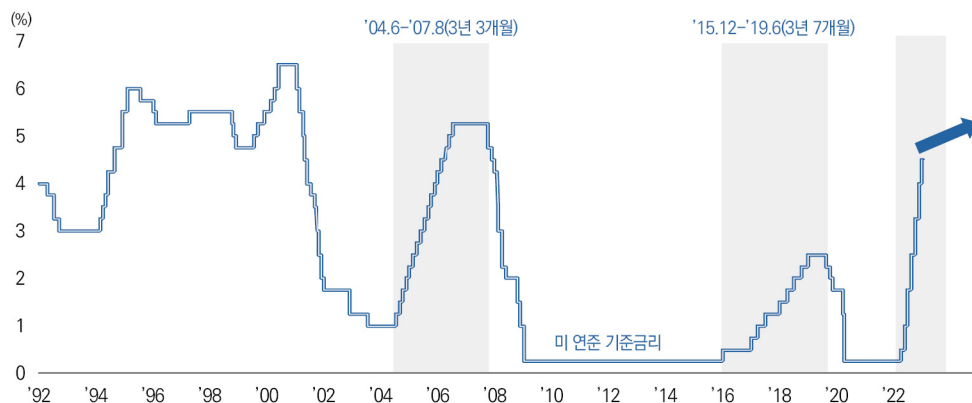
	2022	2023			
		1Q	2Q	3Q	4Q
미국 기준금리	4.5	5.1	5.1	5.0	4.7

주: 49개 전망기관 전망을 활용하여 발표
자료: Bloomberg

□ 또한 과거 미 연준의 통화긴축 사례 검토시 2023년 중 높은 금리가 지속될 가능성

- 2000년대 이후 2차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최고 기준금리 지속 기간은 각각 3년 3개월(2004.6월~2007.8월), 3년 7개월(2015.12월~2019.6월)
-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2022년 1월 이후 진행된 점을 고려시 2023년 중 현 기준금리에서 큰 폭의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음¹⁾
 - 다만 기준금리 인상 폭 및 인상 속도는 완화될 가능성

[그림 III-12] 미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 사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2023년 1월 발표된 FOMC 12월 회의록에서 미 연준위원들은 2023년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

나. 금리상승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²⁾

□ 금리상승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뿐 아니라 실물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

- 미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 외환시장 불안, 투자자본 이탈 등을 초래하고 이는 과거 우리 금융시장의 금융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경상수지 등을 통해 신흥국의 금융안정성을 분석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양적긴축 등에 따른 금리상승은 자산가격의 하방 압력을 높여 우리나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
 - 시중 금리 변화와 아파트 가격 간 연계성을 분석
- 이자율 상승은 국채의 이자부담을 증가시켜 정책여력을 줄이고 구축효과 등으로 정책효과를 제약할 가능성
 -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관련 이자 부담 변화를 추정

[그림 III-13] 금리상승의 부문별 영향 flow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에 정부도 금융시장 안정을 2023년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는 상황

- 정부는 2023년 정부정책방향에서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하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 금융시장의 위기대응 능력 등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채권시장 수급개선 및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
- 또한 부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세제 개편을 포함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

2) 본 장의 분석은 금융 및 자산시장에 집중하며 투자 등 실물 경제 영향은 5장 참조

(1) 신흥국 금융(유동성)리스크

1) 검토배경

□ 미 연준 등의 통화긴축이 지속되며 신흥국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점증

- 미 연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4.5조 달러를 상회하는 양적완화를 진행하였으나 2022년 물가리스크가 부각되며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을 추진
 - 미 연준은 2022년 6월 이후 매월 475억 달러의 미 연준 보유채권을 축소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보유채권 축소규모를 국채 월 950억 달러로 확대
- 그동안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으로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되었던 글로벌 유동성이 미 연준 등의 통화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신흥국에서 빠르게 이탈할 우려
- 이 과정에서 채무가 많고 대외거래 등이 취약한 신흥국 등에서 금융불안이 부각될 가능성

□ 대외의존도 등 고려시 신흥국 금융불안은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일 우려

- 금융리스크는 금융시장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심리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금융시장 불안은 자산(주식)가격 하락, 통화가치 절하, 신용경색,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경제심리가 나빠지면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 특히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금융·무역 개방도가 매우 높아 대외 충격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

□ 미 연준의 통화긴축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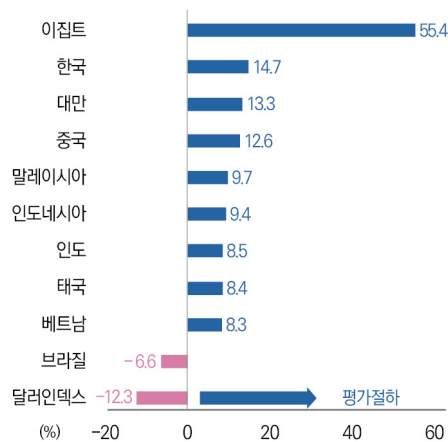
- 이를 위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과거 미 연준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진행하였던 기간의 특성 및 금융불안 발생 여부를 분석
- 또한 신흥국 등의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단기외채 규모 등을 통해 금융안정성을 분석하고 금융불안 요인을 점검

2) 최근 동향

□ 2022년 미 연준의 가파른 통화긴축 이후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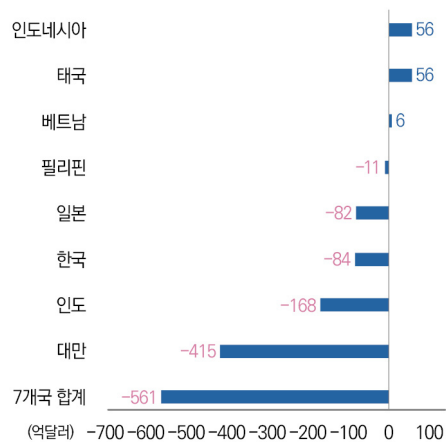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신흥국 통화가치가 가파르게 절하
 -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인 2021년 12월말 대비 2022년 11월말 신흥국 통화가치는 이집트(55.4%), 대만(13.3%), 중국(12.6%), 말레이시아(9.7%), 인도네시아(9.4%) 등 절하
 - 한편 한국 원화의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는 동기간 14.7% 절하
- 또한 미 연준의 통화긴축과 함께 일부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유출
 - 대만 415억 달러, 인도 168억 달러, 태국 0.7억 달러 등 조사대상 9개 신흥국 중 6개국에서 주식투자 자금이 유출

[그림 III-14] 한국 및 신흥국 통화의
절상·절하율



자료: Bloomberg

[그림 III-15]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
자금유출입



주: 2022년 기준

자료: Bloomberg

□ 한편, 미국 뿐 아니라 유로존 등도 통화긴축을 추진하며 통화정책이 동조화

- 이러한 미 연준과 주요국 간 통화정책 동조화는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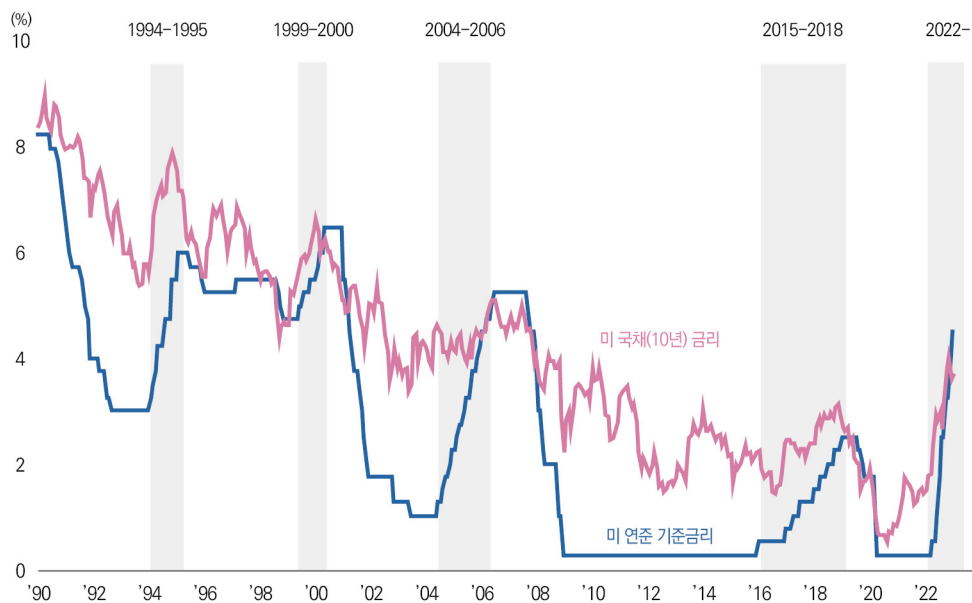
3) 주요 신흥국 금융안정성 분석

(가) 과거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전환 사례

□ 1990년대 이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된 사례는 4차례

- 1994년 2월~1995년 2월 미 연준은 7차례 총 3%p의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
 - 이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3.0%에서 6.0%로 상승
- 2004년 6월부터 2006년 7월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1%에서 5.25%로 인상
 - 이 기간 미 연준은 총 17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4.25%p 기준금리를 인상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0~0.25%로 인하하고 4조 달러의 양적완화를 추진한 미 연준은 2014년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기준금리 인상(2015년) 등 통화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그림 III-16] 미국의 정책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1990년대 미 연준의 통화긴축 등으로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환위기가 발생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신흥국 통화가치의 하락, 미국과 신흥국 간 시중금리차 축소가 발생하며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에서 이탈
-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외환위기가 발생

□ 또한 2014년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된 이후 신흥국 금융불안이 부각

-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실시, 양적완화 중단,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신흥국 통화가치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많은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자금 유출 발생
 - 러시아, 브라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통화가치가 하락하며 금융불안이 확대
 - 또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2016년 말 전후 2달간 남아공,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주식시장에서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브라질, 터키 등에서도 자금이 이탈

[그림 III-17]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발생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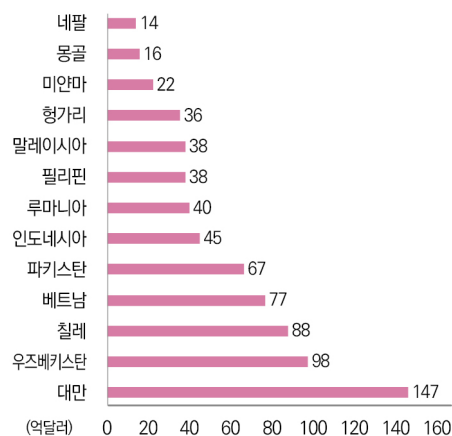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신흥국 금융불안정성 분석

□ 주요국의 통화긴축이 지속될 경우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확산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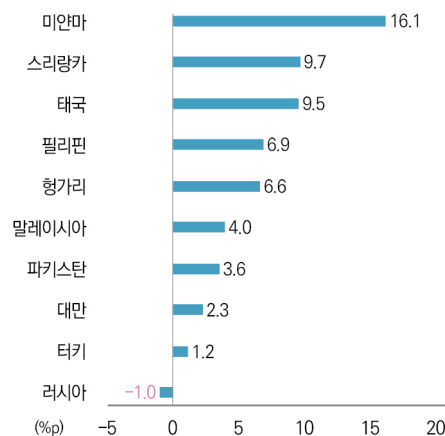
-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높은 단기외채 비중 등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금융불안이 금융(유동성)위기로 확대될 우려
- 주요 신흥국의 대외채무 규모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증가세
 - 대만의 대외부채 규모는 2019년말 1,847억 달러에서 2022년 2분기 1,993억 달러로, 동기간 칠레는 1,984억 달러에서 2,072억 달러로, 베트남은 1,173억 달러에서 1,250억 달러로 증가

[그림 III-18] 주요 신흥국 외채 증가액



주: 2019년말 대비 2022년 2분기
자료: Datastream 등

[그림 III-19] 주요 신흥국 GDP 대비 외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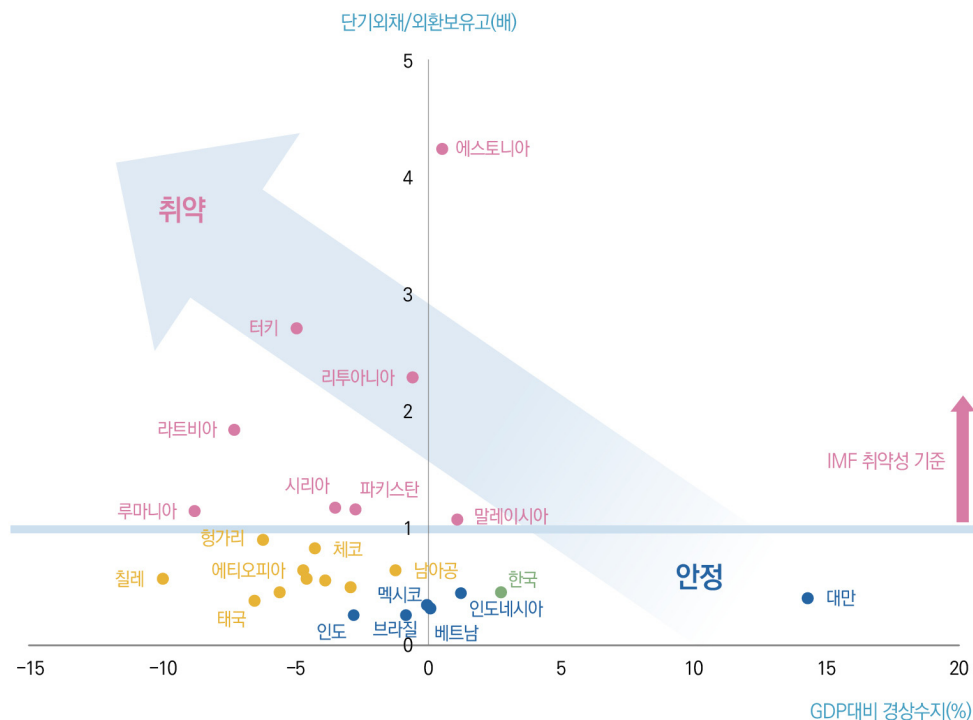
주: 2019년말 대비 2022년 2분기
자료: Datastream 등

□ 신흥국의 금융불안정성을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상환 능력 등을 통해 분석

- 에스토니아, 터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시리아, 파키스탄, 루마니아 등은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IMF 대외 취약성 기준인 100% 보다 높아 금융안정성이 취약한 상황
 - 특히 터키의 경우 2022년 2분기 기준 경상수지도 GDP 대비 -5.0%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

-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규모가 100%를 상회하고 있어 취약한 상황
- 헝가리, 체코는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규모가 80%를 상회하는 가운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4%를 상회해 향후 위험성이 부각될 가능성
 - 칠레는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0.6배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10% 상회하고 있어 금융불안 발생 우려
-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금융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인도 역시 금융불안이 금융위기 상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
 - 대만, 인도네시아 등은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50%를 하회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금융안정성이 높은 상황
 - 베트남,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은 경상수지가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0.3% 수준으로 안정적

[그림 III-20] 주요 신흥국 금융안정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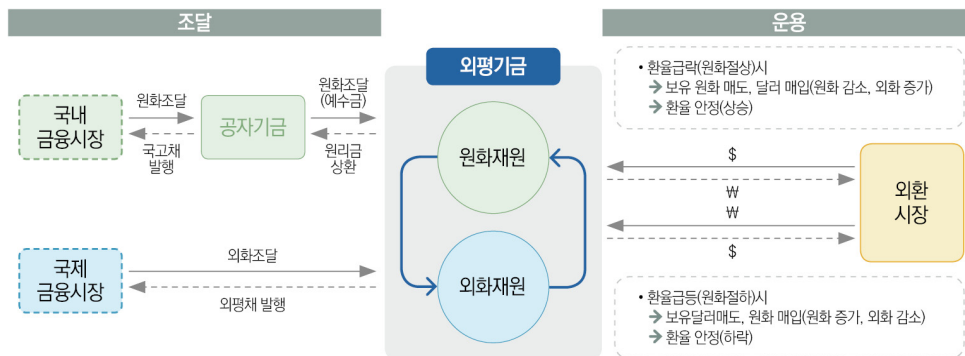
주: 2022년 2분기 기준
자료: Datastream 등

[BOX 7]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환시장 급변 대응

□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과 외화유동성 수급조절 등을 위해 설치

- 동 기금은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외화 자금을 통해 외환시장 급변에 대응하여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외화유동성을 공급³⁾
 - 환율 상승 시 외화자산을 매도하고 원화자산을 매입하며, 환율 하락 시에는 외화자산을 매입하고 원화자산을 매도

[외국환평형기금의 조달 및 운용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 2023년 정부는 27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

- 당초 정부안인 30억 달러 대비 3억 달러 감액된 규모이며, 이는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외평채 발행한도 13억 달러의 2.1배 수준
 -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등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심화되어 외평채 발행한도가 확대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

(단위: 억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외평채 발행한도	10	15	15	15	10	27

자료: 기획재정부

- 원/달러 환율은 2022년 10월까지 상승한 이후 안정화되고 있으나 신흥국 금융불안,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등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재차 확대시킬 우려가 존재
 - 원/달러 환율(월평균)은 2022년 1월 1,195원, 10월 1,427원, 12월 1,297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1월 20일 기준 1,236원

3) 동 기금을 통해 확보한 외화재원은 중앙은행,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에 포함됨

(2)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방 리스크

1) 주택시장 동향 및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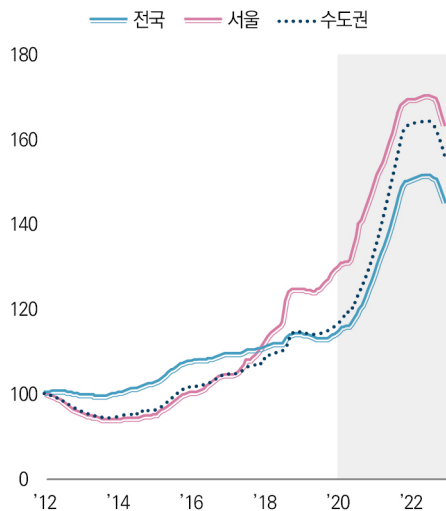
□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금리상승과 함께 하락 전환

- 우리나라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012년~2021년 50% 상승하였으나 2022년 중 3.1% 하락
 - 전국아파트 가격은 2012~2019년 기간 13.6% 상승하였으나 2020~2021년 31.8% 상승
-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12~2021년 각각 69.1%, 63.5%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2022년 하락세를 보이며 각각 3.0%, 4.7% 하락

□ 글로벌 주택가격도 2022년 들어 전반적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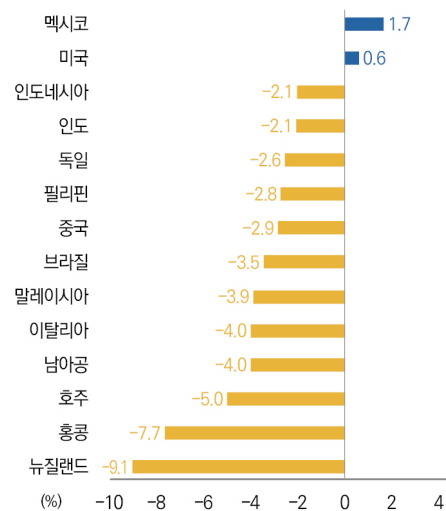
- 뉴질랜드, 홍콩, 호주 주택가격은 2022년 중 5% 이상 하락
 - 뉴질랜드 주택가격은 2022년 중 9.1%, 홍콩 7.7%, 호주 5.0% 하락한 가운데 남아공, 이탈리아, 말레이시아도 각각 4.0%, 4.0%, 3.9% 하락
- 반면 미국, 멕시코는 2022년 중 각각 0.6%, 1.7% 상승

[그림 III-21] 주요 권역별 주택가격 추이



주: 1. 주택가격은 2012년 1월을 100으로 조정
2. 아파트가격 기준
자료: KB국민은행

[그림 III-22] 글로벌 주택가격 변화율



주: 2021년말 대비 최근(2022년 3분기/2분기) 주택가격 변화율
자료: BIS

□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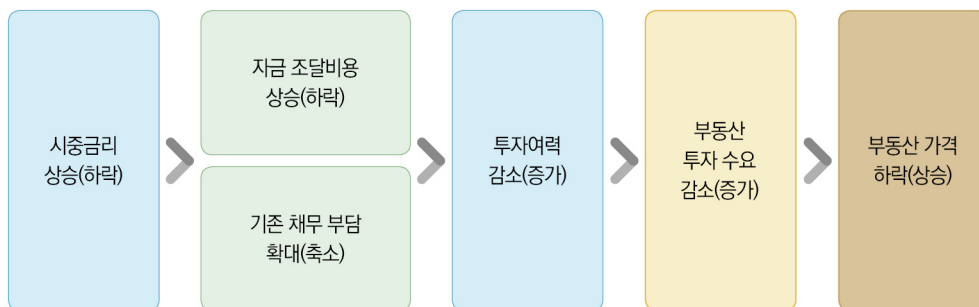
- 한국은행,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물가불안 완화를 위해 긴축적 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중금리가 일정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검토

2) 금리와 주택시장 간 연계성 분석

□ 시중금리는 부동산 투자의 조달비용 등을 변화시켜 부동산가격에 영향

- 금리상승은 부동산 투자금의 조달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존 채무부담을 확대 해 부동산 구입 유인을 억제
- 또한 금리상승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를 하락시켜 부동산 투자유인을 낮출 가능성

[그림 III-23] 금리와 주택가격 간 연계 Flow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금리와 주택가격 간 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재

- Lastrapes(2002)는 기준금리 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에 반응해 주택가격이 상승했음을 분석
 - 이영수(2008)는 금리상승시 주택가격이 19개월에 걸쳐 하락한다고 분석하였으며 박송춘(2009)도 금리와 부동산가격 간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
- 금리와 부동산가격 간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존재
 - 김윤영(2012)은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유의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

□ 금리와 부동산가격 간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

- KORIBOR(12월), CD(91일), 국고채(3년) 금리 변동분과 권역별 아파트 상승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
 - 시차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진행
- 분석기간은 금융위기(2007~2009년), 유럽재정위기(2010~2012년) 등을 고려하여 설정

□ 2013~2022년 분석결과 금리변동과 주택가격 변동 간 음(-)의 관계가 나타남

- 2013~2022년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전국 아파트가격과 KORIBOR(12월), CD(91일), 국고채(3년) 금리 간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전국아파트가격 상승률과 KORIBOR(12월) 금리 간 상관관계수⁴⁾는 -0.27으로 나타나며 CD(91일), 국고채(3년)은 각각 -0.36, -0.15
- 서울, 광역시, 수도권 상관계수도 모두 금리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서울아파트가격 상승률과 KORIBOR(12월) 금리 간 상관관계수는 -0.24으로 나타나며 CD(91일), 국고채(3년)은 각각 -0.31, -0.16
 -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과 KORIBOR(12월) 금리 간 상관관계수는 -0.46로 나타나며 CD(91일)는 -0.55, 국고채(3년)은 -0.33
 -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KORIBOR(12월) 금리 간 상관관계수는 -0.25, CD(91일)는 -0.33, 국고채(3년)은 -0.14
- 이러한 결과는 금리 하락(상승)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줌

[표 III-1] 시장금리와 주택가격간 상관계수

	분석기간(2013~2022년)			
	전국 아파트	서울 아파트	5대 광역시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KORIBOR(12개월)	-0.27	-0.24	-0.46	-0.25
CD(91일)	-0.36	-0.31	-0.55	-0.33
국고채(3년)	-0.15	-0.16	-0.33	-0.14

4) 상관계수는 -1 ~ 1의 값으로 0 값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고,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양(+)의 방향인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값이 증가하면 다른 하나의 변수값이 증가하는 관계이며, 음(-)의 방향인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값이 증가하면 다른 하나의 변수값이 감소하는 관계

□ 2018~2022년 분석결과도 시중금리와 아파트 가격 간 음(-)의 연계성을 보임

- 2018~2022년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전국 아파트가격과 KORIBOR(12월), CD(91일), 국고채(3년) 금리 간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전국아파트가격 상승률과 KORIBOR(12월) 금리 간 상관계수는 -0.46으로 나타나며 CD(91일), 국고채(3년)은 각각 -0.59, -0.27
- 서울, 광역시, 수도권 상관계수도 모두 금리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서울아파트가격 상승률과 KORIBOR(12월) 금리 간 상관계수는 -0.64으로 나타나며 CD(91일), 국고채(3년)은 각각 -0.75, -0.48
 - 5개 광역시 아파트 가격과 KORIBOR(12월) 금리 간 상관계수는 -0.55로 나타나며 CD(91일)는 -0.67, 국고채(3년)은 -0.38
 -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률과 KORIBOR(12월) 금리 간 상관계수는 -0.52, CD(91일)는 -0.64, 국고채(3년)은 -0.33

[표 III-2] 시장금리와 주택가격간 상관계수

	분석기간(2018~2022년)			
	전국 아파트	서울 아파트	5대 광역시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KORIBOR(12개월)	-0.46	-0.64	-0.55	-0.52
CD(91일)	-0.59	-0.75	-0.67	-0.64
국고채(3년)	-0.27	-0.48	-0.38	-0.33

□ 이는 최근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하락 간 연계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 서울, 수도권, 광역시 뿐 아니라 전국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금리여건 등을 고려시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이 존재할 가능성

[BOX 8]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보증 공급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동산 관련 보증,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업무 등을 수행
- 공사는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 주택건설자금 조달 관련 PF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도시재생 관련 금융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
 - 2023년 공사는 기준금리 인상, 경기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주택시장의 안정,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기업보증 130.3조, 개인보증 117.4조 등 총 247.7조원의 보증 공급을 계획

[2019~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발급 실적 및 계획]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업보증	92.0	108.9	115.6	118.3	130.3
개인보증	83.3	102.5	120.5	116.4	117.4
합계	175.3	211.4	236.1	234.7	247.7

주: 2019~2022년은 보증발급 실적, 2023년은 보증발급 계획규모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2022년 크게 증가한 상황

- 전세 관련 보증사고 증가 등으로 인해 2022년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과거 대비 크게 증가한 1.57조원, 1.06조원으로, 공사의 재무건전성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주택도시기금법」 제29조는 공사의 손실은 공사가 보전하되, 부족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정부재원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채권회수 증대,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선제적인 관리 필요

[2018~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증사고 금액	3,329	9,026	9,987	8,171	15,693
대위변제 금액	873	4,648	6,422	6,029	10,581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법」 제27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배수를 자기자본의 60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공사의 보증배수 역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54.4배를 기록

[2018~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배수]

(단위: 조원, 배)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도사용액(A)	231.5	250.6	271.5	310.8	359.4
전년도자기자본(B)	5.15	5.50	5.73	6.32	6.61
보증배수(A/B)	45.0	45.6	47.4	49.2	54.4

주: 한도사용액은 보증잔액에서 담보부보증금액을 제외한 금액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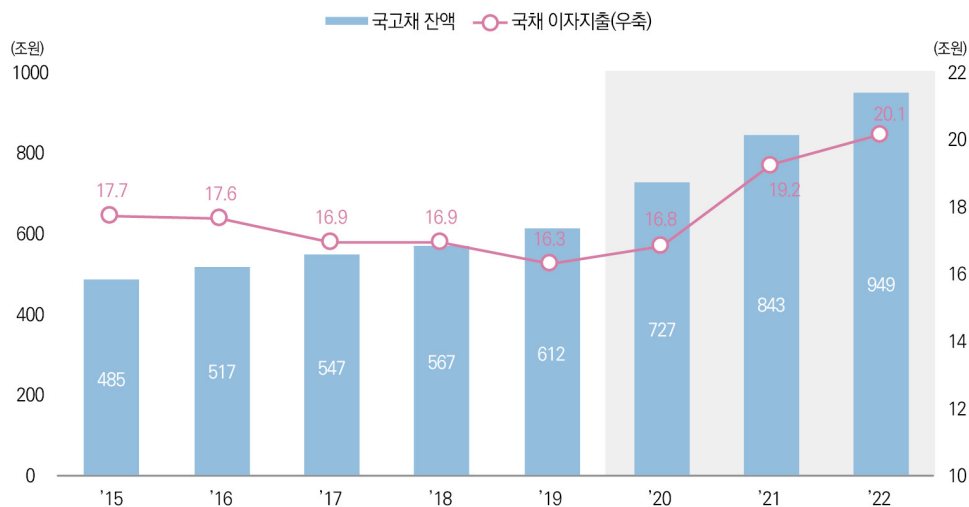
(3) 금리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부담 확대

1) 최근 동향 및 검토 배경

□ 최근 국채 잔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채 관련 이자부담이 확대

- 국고채 발행량 확대 등으로 국고채 잔액이 증가세를 지속
 - 국고채 잔액은 2019년 612조원에서 2020년 727조원, 2021년 843조원, 2022년 949조원으로 확대
- 국채 이자비용은 2015년 17.7조원에서 2019년 16.3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국채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2년 20.1조원으로 확대
 - 2022년 연간 국채이자 부담액은 2019년 대비 23.3% 증가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지출 비용은 연평균 13% 증가하여 2026년 30.9조원을 기록할 전망

[그림 III-24] 국고채 잔액 및 이자지출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등

□ 국채발행량이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국채 이자 부담 등을 점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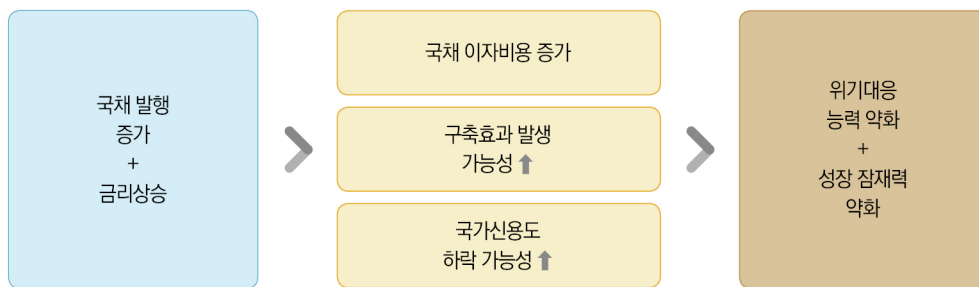
- 국채발행량과 국채 조달금리 변화를 검토하고 국채 이자 부담 증가를 분석
- 또한 국채금리 상승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리스크 확산 경로를 검토

2) 금리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증가 규모 분석

□ 국채금리 상승은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금리 역시 상승할 경우 이자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재정여력 및 정책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국채 발행량 증가 및 이자율 상승은 국가 재정 중 보다 많은 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재정여력을 위축할 소지
- 국채 이자비용 증가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자금조달 부담 및 금융불안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국채 발행량 증가 및 이자율 상승은 민간 투자를 위축할 가능성
 - 정부는 지출 증가를 위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상승 국면에서 국채 발행 증가는 이자율을 상승시킬 가능성
 - 높아진 이자율은 기업의 대출 비용을 상승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

[그림 III-25] 국가부채 증가 및 국채금리 상승의 리스크 확산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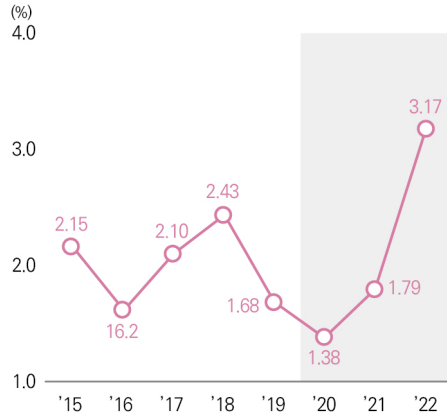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최근 국고채 발행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고채 조달금리도 가파른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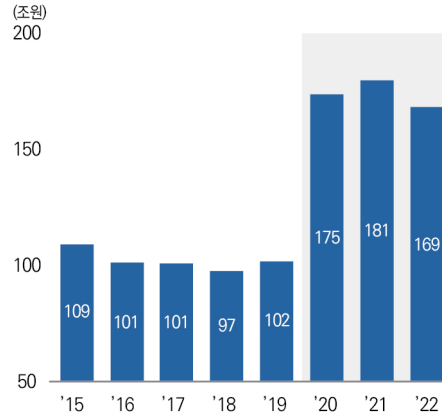
- 국고채 발행량은 2017~2019년 연평균 100조원 규모에서 2020~2022년 연평균 175조원으로 증가
 - 이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된데 주로 기인
-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2018년 2.43%에서 2020년 1.38%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22년 3.17%를 기록
 - 2022년 국고채 평균조달 금리는 3.17%는 2020년 대비 1.79%p, 2021년 대비 1.38%p 상승한 수준

[그림 III-26]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등

[그림 III-27] 국고채 발행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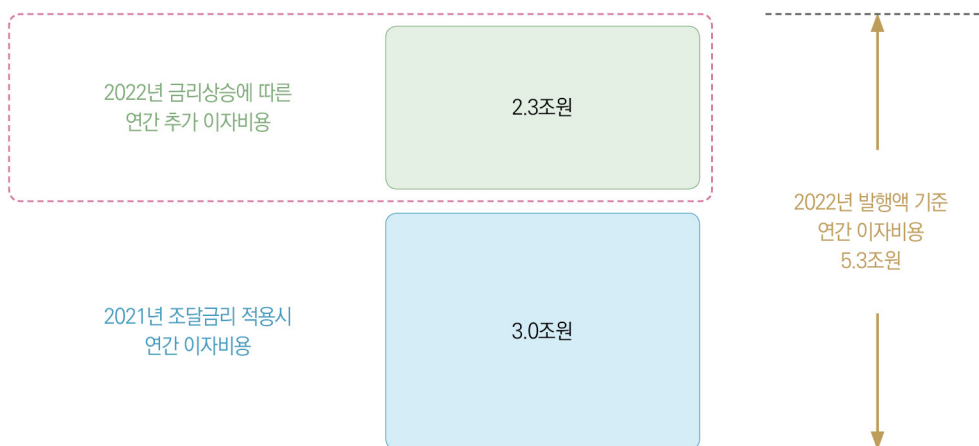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등

□ 2022년 발행량 기준 금리상승에 따른 연간 추가 이자 부담액은 2.3조원 규모

-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은 5.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중 2.3조원은 금리상승에 따른 추가적 부담
 - 조달금리가 2021년 1.79%에서 3.17%로 1.38%p 상승하여 2022년 발행물량 169조원 고려시 2021년 대비 2.3조원의 이자비용이 증가
- 2023년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67.8조원 규모로 국고채가 발행한도까지 발행될 경우 금리 0.1%p 상승은 이자비용을 연간 1,678억원 증가시킬 전망

[그림 III-28] 2022년 국고채 금리상승에 따른 추가 국채 이자 부담액



주: 2022년 국고채 발행액 기준

[BOX 9]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국채이자 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회계·기금 등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국채의 발행·상환 등을 위해 설치
 - 동 기금은 국채발행, 회계·기금 등의 여유자금 예수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재원이 필요한 회계·기금에 자금을 예탁, 국채 원리금을 상환
 - 자금을 예탁받은 회계·기금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이를 다시 자금 예탁, 국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
- 2023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국고채 이자상환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24.8조원
 - 정부는 동 예산안 편성 시 신규발행 국고채의 평균조달금리를 4.0%로 설정
 - 2020~2021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정부는 평균조달금리를 각각 2.6%, 2.4%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조달금리는 1.38%, 1.79%
 -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대응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2022년부터 국고채의 조달금리와 이자상환부담 역시 높아지는 상황
 -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 설정한 평균조달금리는 2.6%, 2022년 실제 조달금리는 3.17%
 -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 5.3조원 중 2.3조원이 금리상승으로 발생(2021년·2022년의 조달금리 차이, 2022년도 발행물량 등을 고려하여 추정)
- 2023년 국고채 이자상환부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보다 높아질 가능성 존재
 - 국고채 금리가 2022년 1~10월 가파른 상승 이후 최근 조정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의 통화긴축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금리상승 등 국채시장의 변동성을 높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23년 이자지출 전망치 19.2조원보다 이자상환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
 - 2023년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67.8조원 규모로, 한도까지 발행될 경우 금리가 0.1%p씩 상승할 때마다 이자비용은 연간 1,678억원 증가할 예정
 -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출은 적자성 채무 증가,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6년 27.3조원까지 증가할 전망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출 전망]

(단위: 조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공공자금관리기금	15.7	19.2	22.2	25.0	27.3

자료: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5. 요약 및 시사점

□ 금리상승 및 고금리 기조는 미 연준의 통화긴축 등을 고려시 일정기간 지속될 전망

- 2022년 6월 시작된 미 연준의 양적긴축 등은 향후 금리의 하방압력을 제한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 연준이 양적완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공급한 4.8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 회수를 위해, 양적긴축이 일정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또한 미 연준의 2000년대 초반 이후 기준금리 인상 사례와 비교해 최근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 기간이 짧고 미국 등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2023년 중 현 기준금리에서 큰 폭의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음
- 다만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세의 주요 동인이었던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과 인상 속도는 완화될 가능성

□ 금리상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미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 외환시장 불안, 투자자본 이탈 등을 초래하고 이는 과거 우리 금융시장의 금융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분석결과 터키,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등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IMF 대외 취약성 기준인 100% 보다 높아 금융안정성이 취약한 상황
- 최근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와 주택가격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금리변동과 주택가격 변동 간 음(-)의 연계성이 나타남
 - 이는 금리 상승시 주택가격의 하락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
- 2022년 국고채 조달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2022년 발행량 기준 2021년 대비 금리상승에 따른 연간 추가 이자 부담액은 2.3조원으로 추정

□ 금융위기 대응 여력을 확대하고 금융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신흥국 위기의 국내 전이 위험에 대한 적시적 대응을 위해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
- 금리상승에 기인한 부동산시장 위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국고채 투자환경 개선, 시장 조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국채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발간일	2023년 1월 31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 (tel 02·2672·1535)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13-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527-001997-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